

●연중 제 17주일 강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물으면 답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불안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간청하기 위해서 등등.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예수께 우리도 귀를 기울여봅시다.

예수님은 낮동안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밤이나 새벽녘에 외딴 곳에 가서 기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범주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그분은 그 내용대로 지상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지상 사명의 주제는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앓는 이가 치유되고, 갇힌 이가 해방되는 그 나라를 위해 추수할 일꾼 열둘을 뽑기 전에 밤을 새우며 산에서 기도하셨지요(루카 6,12).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뒤 사람들이 임금으로 모시려 하자 예수께서는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요한 4,34)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유혹이 그만큼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해야 하셨습니다. 갈릴래아 카파르나움에서 떠나지 말아 달라고 붙드는 군중을 뒤로 하고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

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루카 4,43)라고 하시며 떠나십니다. 그날 새벽녘에 기도를 하신 후의 결정입니다. 제자들에게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후 예루살렘 상경을 앞두고 제자 셋과 산에 가시어 기도하십니다(루카 22,39-44).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지 알 수만 있다면야...’ 하고 쉽게 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 하기까지 피땀을 흘리면서 고뇌해야 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마태 6,34) 하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청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어들이는 것은 모두 부패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을 곳간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저녁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양식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루카 12,16-21)와 같은 맥락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나를 위해 축적하지 말고 굶어 죽어가는 이를 못 본 채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이를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힐 때 ‘이번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 하고 마음에 독을 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란 기도문이 마음에 걸려 차라리 성당에 나가지 않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네 죄는 용서받았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며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큰 무기입니다. 유혹에 빠져들면 악과 손잡게 되는 일은 쉽습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루카 22,31-32ㄱ)라고 하시고는 올리브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루카 22,39-40).

예수께서는 수난을 앞두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하여,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요(요한 17장).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과 흥정하는 장면은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 한 분의 기도의 힘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후반부는 인간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의 외적 차원에서부터 점차 내적 차원으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용서의 필요성, 스스로도 속는 교묘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깊은 내적 성찰, 마침내 마음의 순결을 얻음으로써 하느님을 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빈말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고, 드러내어 보이려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마태 6,6 참조). 때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줄라 불의한 재판관을 끝내 항복하게 만든 과부처럼 기도하여야 합니다(루카 18,1-8).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 세라피아 수녀(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공소일반공지●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성 암브로시오의 사은 찬미가
-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 세상이 삼가 받들어 모시나이다. 하늘의 모든 천사, 케루빔과 세라핌이 끊임없이 소리 높여 노래 부르오니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 우리의 주 하느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주님의 영광을 하늘과 땅에 가득하도록. 대열의 관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을 주신 예수님의 대열을 아버지께 높이 기려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가 그치지없이 임하시나 아버지 친아드님, 받들어 모셔야 할 외아드님
 -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나이다.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드님,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몸소 사람이 되시고자 동행하신 분이 우리를 마다 않으셨나이다. 주님의 가시들을 쳐보리시고 믿는 이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나이다.
 - 지금은 하느님의 오른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계시며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받은 당신 종들 저희들도 구원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여성 꾸르실료주말 251차 참가신청접수

- ▶일 시: 07년 9월 20(오후6시)~23일(오후6시)
- ▶장 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 ▶참가비: \$280 ▶마 감: 8월 26일
- ▶신청및 문의 : 김현태(요셉)간사

◎8월 사목회의

일시: 오늘 주일미사 후/ 장소: 공소회장 자택

◎울뜨레아 야유회

8월12일(일) 미사후 Victoria Park,Kitchener
문의: 울뜨레아 간사 (김현태 요셉)

◎ 본당 신부님 배 골프대회 연습 게임

8월 13일(월) 대회장소인 South Brook Golf Club
현장에서 연습게임을 가질 예정이오니 희망자는
행사부장(윤명원 요셉형제)에게 접수 바랍니다.

◎구역 모임(야유회)

2구역 :8월 5일 주일미사 후/ Stanly Park(키치너)

◎친교에 관한 안내

친교실 공사일정'으로 인해 그동안 잠시 친교를
위해 나누던 스낵(커피 포함)류 조차도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이에, '본당으로 가는 길'에 더욱
매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오로지 뜻을 함께하는 열렬한 기도와 정성을 다한
헌금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로 뭉쳐 굳센 각오로 곳곳하게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것입니다.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친교실 공사는 올해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서부공소인터넷 클럽 '신부님의 성서문답' 개설

'성서 100주간' 공부 중 궁금한 점을 모아 본당
신부님께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시는 참고서
형식의 알찬 코너입니다. 현재 많은 문답이 올라
와 성서를 알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을 주고
있으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클럽
가입은 서기(한택종 형제)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이메일주소

koandi92@hanmail.net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현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8월 12일 : 교무금 / 8/월 26일 : 성전건립)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성시간

▶8월 2일(목) 오후 8시 미사 및 성체헌시

◎ 성모 신심미사

▶8월 4일 토요일 낮 12시

◎ 2007 본당 신부님 배 골프대회

일시: 2007/8월20일 11: 30 회비: \$70
장소: South Brook Golf Club
본당과 공소의 단합을 위한 행사이므로 많은
분들의 참석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남는 이익금은 본당 친교실 공사 상환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경품에 사용될 물품과 현금 도네이션
받습니다.(사목회 총무님과 사목회장)

◎ 주간 전례

- ▶7월31일(화) 오후8시, 성 이냐시오 사제기념일
- ▶8월 2일(목) 낮12시, 연중 제 17주간 목요일
- ▶8월 2일(목) 오후 8시, 연중 제 17주간 목요일
- ▶8월 4일(토) 낮 12시, 성모 신심미사

◎7.8월 휴가기간

7월과 8월은 많은 가족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
다. 그러나 신앙은 휴가가 없습니다. 휴가를 가
면 당연히 신앙생활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휴가계획들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2007-30

2007. 7. 29.

연중 제 17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례

해 설 |이우원 차주 해설 박인선

화 답 송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주님께서는
제게 응답하셨나이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노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40) 구하시오 받으리라
봉 헌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성 체 (160) 하느님의 어린 양
퇴 장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독 서

7월 29일 장명길 장용경
8월 5일 이상재 이향숙
8월 12일 고영호 고기숙
8월 19일 김호철 김창숙

봉 헌

7월 22일 노동원 노성은
7월 29일 이민 이활란
8월 5일 장명길 장용경
8월 12일 이상재 이향숙
8월 19일 고영호 고기숙

2007년 7월 22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447.50
성전건립:	\$ 210.00
Total:	\$ 667.50